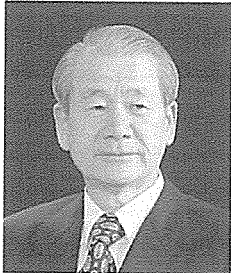


# 창립 31년 ... 내년 대규모 국제학술회의 유치 한국펄프·종이공학회

1967년 11월 25일 창립되어 올해로 31돌을 맞는 한국펄프·종이공학회는 해마다 다채로운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면서 연구활동을 계속해왔다. 우리나라는 종이소비량이 1인당 연간 150kg으로 지류생산·소비규모가 세계 9위권이지만 원료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현재 「학회창립 30년사」를 편찬중인 펄프·종이공학회는 내년 6월에 대규모 국제학술행사를 서울로 유치해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辛東韶  
(한국펄프·종이공학회 회장)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펄프와 종이는 인간에게 소중한 물질이다. 그리고 종이의 발명은 인류가 발명한 증기기관, 전기의 발명에 못지 않다. 오늘날 생명공학, 유전공학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종이의 위력은 날로 더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학이 발전할수록 종이는 인류의 총아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펄프와 종이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 친목증진을 목적으로 1967년 11월 25일에 창립된 한국펄프·종이공학회는 이제 만

31주년을 지나게 되었다.

초대 이범순(李範純) 회장에 이어 전풍진(田豐鎭) 박사, 온두현(溫斗炫) 교수를 거쳐 신동소(辛東韶) 현 회장이 선임되어 학회발전에 힘써왔다. 해마다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가지는 한편 2년마다 임원 개선을 하며,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관련업체의 대표, 연구소, 대학교수, 관계 공공기관에 안배하고, 일반회원은 관련 전문인을 비롯하여 관련 해외기관까지 포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 종이소비 세계 9위

한편, 창립 이후 30회가 개최된 국제학술심포지엄은 국내 펄프제지 기술개발에 촉매가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기초학술과 최신기술을 관련업체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첨단 펄프 및 제지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학회와 제지산업은 상호밀접하게 관련되어 학회의 수준이 관련업체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데, 우

리나라 제지산업은 창설될 당시 1인당 종이 소비량이 6.7kg에 불과하다가, 1997년 1인당 150kg으로 늘어났으며, 이제 지류생산 및 소비가 세계 9위에 도달한 '제지산업국'이 되었지만 원료확보, 나아가 공장의 자동화, 초지기의 고속화 및 제지기술 고도화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취약점을 안고 있다.

지류생산량은 1960년 말 약 5만5천톤이던 것이 1998년 7백68만톤(예측) 규모로 증대되었으며, 초지기는 1960년대 분당 100~300m였던 것이 최근에는 700~1,500m로 고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류수출도 1985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60년대에는 통나무에 의한 신문용지 생산, 고지에 의한 골판지 제조가 주종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고급 인쇄용지인 아트지와 특수지가 개발되어 고부가가치 지류를 수출하고 있다. 원인없는 결과가 없듯이 지류의 생산규모 확대와 고급지류의 생산은 학회 학술활동의 결과라 생각된다. 이는 학술활동이 정보의 원천과 기술개발의 활력소가 된 것으로, 산업의 발전에는 학회의 활성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학회창립 30년사」 편찬중

이제 성년을 맞이하여 학술활동 및 제지공업의 과거를 조명하고, 현재의 온고지신, 미래의 청사진으로 제지산업의 도약을 위한 이정표로써 「학회 창립 30년사」 자료를 편찬중에 있으며, 21세기 첨단 제지기술의 새 지평을 여는 주역이라는 확산과

회원의 학술진작을 통한 기술전파의 모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미국 TAPPI, CPPA와 밀접한 국제 교류를 행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없었던 1989년 7월 31일~8월 11일 학회 회원 일행이 중국을 방문하여 카운트파트너인 China TAPPI본부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를 강화한 다음 우리나라 제지산업체, 제지기계 메이커와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현재도 중국 여러 성과의 기술교류 및 투자상담을 진행중에 있다.

세계 펄프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TAPPI와의 첫 교류는 1991년 6월 23일에서 7월 8일까지 이루어져 학술교류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방문에서 우리는 미국 근대제지산업을 개척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미국 제지인에게 이해시켰으며 새로운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미국 TAPPI일행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내 제지산업의 현장을 견학하고 국내 종이 품질이 선진국에 못지않게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선진 제지업계의 VIP들이 우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우리 종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 제지산업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을 통하여 인정받게 된 것은 학회의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국제교류의 인연으로 97년 10월 16일에서 17일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고지 재활용 심포지엄을 미국 TAPPI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 1997년 고지재활용기술 국제학술대회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종이의 원료인 펄프자원이 부족하여 자원보유국이 천연펄프 생산을 감소시키는 추세에서 우리 제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낙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고지를 회수, 재활용하여 왔으며 고지활용 및 재활용이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고지활용의 일등국이었으나, 홍보의 부족, 국제교류의 부재 등으로 우리의 실정을 알리지 못하였고, 최근의 국제 학술행사로 미국이 우리나라 고지 재활용 기술과 고지 자원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학술행사에 참여한 것도 학회의 역할과 위상의 제고라고 확신한다.

### 2월 여의도에 새 사무실

인접국 일본과의 학술교류도 매우 활발한데, 일본은 세계에서 펄프제지공업이 2, 3위를 점하는 제지산업의 강국으로 그 학회의 회원, 자금, 조직이 막대하다. 우리는 일본학회와 견주어 여러 가지 열세에 놓였으나 상호 강점을 더욱 살리기 위하여 펄프제지 기술교류회를 추진하고 있

다. 창립 이래 31년이 지나는 동안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학회 사무실을 두어 20년동안 신세를 졌으며, 또한 서울대 농생대의 한 실험실에 자료를 맡겨오다가 금년 2월에 학회 사무실을 여의도에 마련함으로써 31여년동안의 자료를 정리하고 향후 학회 발전을 위한 기초를 갖추게 되었다.

내년에는 대규모의 국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1995년 6월 8일 헬싱키에서 열린 8차 ISWPC(목재 화학 및 펄프화학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사회에서 10차 ISWPC를 1999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지산업은 물과 펄프원료에 의존하는 소위 용수형 산업과 원료형 산업이므로 이 두 자원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자원의 부족, 특히 2천년대 물자원이 부족한 시대에 대비하여 관련 학회와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㉔